Arca: 몸 없는 생물학에서 온 소음

Aldo Poblete Varas
2026년 11월 24일

매개변수 바깥, 여전히 낯선 지형의 지평 안. 광물의 녹색, 죽은 갈색, 우리를 뒤쫓는 악의 제국을 경멸하는 원초적 지층. 우리는 이미 실리콘의 자연, 기술 세계의 순전한 새로움이기 때문이다. 변성된 키틀러. 서로 어긋나는 재료와 리비도적 치욕으로 이루어진 허구가, 기계들이 갱신된 확신을 생산하는 실험실의 잊힌 어느 곳에서 건져 올려져, 한 문명의 꿈이 썩는 연못을 떠돈다. 그 기묘한 꿈속에서 신체는 자기 자신에 작용한다. 아르카는 이 시간의 종말이 너무 일찍 선포된 뒤에 도착한다. 소진된 전주곡의 선율, 아무것도 달라붙을 수 없을 때까지 밑칠한 캔버스. 준비가 일차적 실행을 대체한다. 통과가 길이 된다. 동사는 이윤의 바깥으로 걸어 나와 아우성과 진부한 트랜스휴머니즘의 승리 선언으로 환원된다.

우리는 그것을 낱낱이 말하고 우리 자신의 귀족적 죄를 용서한다. 그러는 동안 인간 조건의 밀도는 조용히 제 모습을 일그러뜨린다. 인간적인 것은 기묘한 알리바이의 수렴이 되어, 숫자와 가공되지 않은 물질, 그리고 정동이 다스리는 현실 속에서 펼쳐진다. 편의 때문에, 한때 바다를 불러내던 문화적 형식들에 대한 순전한 권태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동을 삼킨다. 아르카를 거치며 그 권태가 갈라진다. 어둠은 생명의 액체가 되어 길들여진 감각성을 파괴한다. 여기서 어둠은 성스러운 비가 되어 땅에서 솟아오른다. 스스로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의 미로에 등을 돌린 채 여전히 서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깨뜨릴 수 있는 어스름. 자본과 신비적 섬망이 소리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내뿜으며 표류하는 드럼 머신과 신시사이저 위를 맴돈다. 음높이가 변조된 목소리의 균열과 무너지는 금속성 타악 아래, 모든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LCL에 잠겨 있다. 케이블이 척수에 직접 들어가 장기, 혹은 그 남은 것이 드러날 때까지 몸통을 억지로 벌린다.

이것은 차갑고 신중한 지향성의 음악이다. 드러난 장기의 황홀경을 향해 가는 엑스트로피적 충동의 엄격한 역학 앞에서 새어 나오는 제사장 같은 한숨. 한계에 대한 루시퍼적 조작. 이 사변적 동굴들의 입구에서 구원과 비평이 떨어져 나간다. 그 안에서 음악과 시간은 무한소 계산 속에서, 전면적인 파열을 기다리는 컴퓨터 케이스 속에서 사라진다. 동시대 미술이 정중히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실존적 힘을 거둬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리 분쟁은 아니다. 오직 그 문턱에서만 이 방의 검은빛들을 설명할 수 있다. 광택이 도는 검은빛들, 범죄의 보편사가 새겨진 영토 위로 펼쳐지는 만화경 같은 외계의 질감이 먹여 살리는, 허락된 꿈의 도서관들. *Mutant*에서 *Kick* 연작 전체에 걸쳐 이것은 신체의 음악이다. 갇힘이 광란의 시로, 과부하에 걸린 감각들 사이의 열에 들뜬 대화로 변하는 곳.

아르카의 음악에서 단층선은 지성에 맞서 음모를 꾸미는 사악한 생물학과 문자와 개념 속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하기를 거부하는 환영적 힘의 잔재 사이를 지난다. 섬망은 이미 순수한 디지털 다이어그램이다. 모든 유기체는 자동 번식에 특화된 생물학적 잔여물인 동시에, 가장 불길한 기계의 환시가 만들어 낸 결산의 신기루 전부다. 그것은 픽셀 밖으로 피를 흘리는 질병을, 주변부의 환상을, 그리고 한 지형에 닻을 내린 주체들의 법의학적 광경을 통과한다. 그곳에서 위신과 생물학은 등을 돌린 채, 막까지 끌려갈 채비를 한 채 기다린다. 그곳에서 콘크리트가 스스로 파괴되지 않고서는 망자의 유해는 안식할 수 없다. 울림은 물러난다. 몸의 잔해가 이루는 광경에 대한 완전한 종속만 남을 때까지. 칩 속에 갇힌 붉고 자성을 띤 달처럼. 그 런웨이로 갈리아노는 아직 지나갈 수 있다. 흑요석 가면을, 그것을 담기 위해 지은 방들 안에 봉인된 채 남겨 두고서.

통사적 연쇄의 가장자리에 선 아르카. 시작들의 시대를 위한 종교. 시간의 기원에서 흘러나온 점성의 소음이 오늘 끓어 넘치기 위해 응고되어 있다.